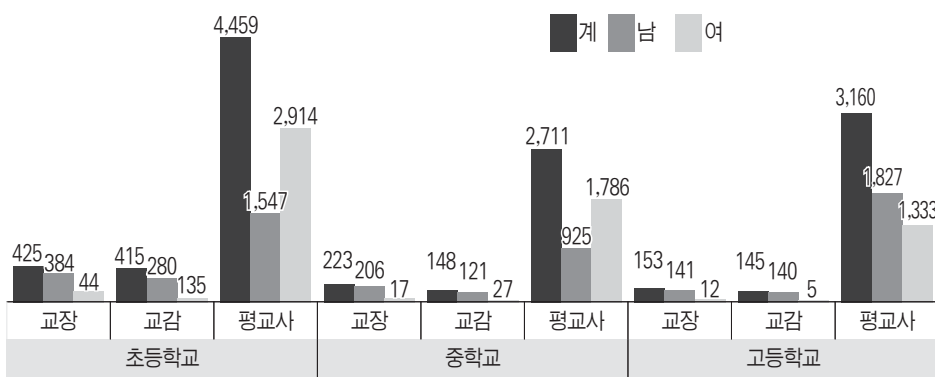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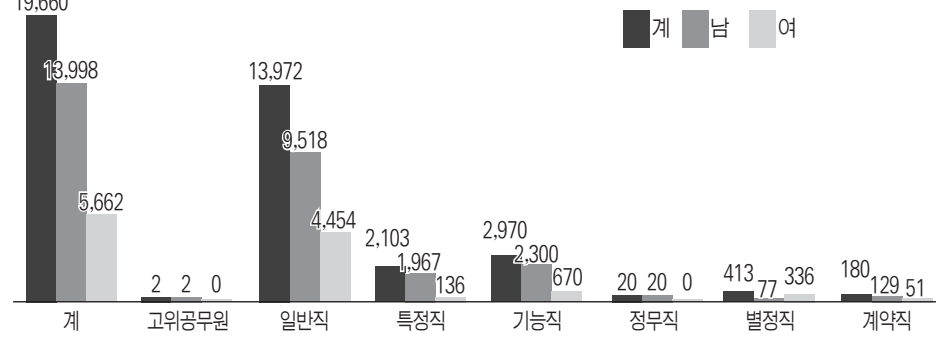


■전남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성비



■전남 직종별 공무원의 성별 현황



전남 간부공무원·교장 여성비율 전국평균 절반

전남여성플라자 분석... 5급이상 공무원 4.9% 불과 여성대통령 시대, 지방의원 16% 교장 10% 그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내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었지만 전남지역 정치·행정·교육 분야의 여성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국회의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전남도청 고위직과 일선 학교 교장의 여성 비율도 여전히 낮았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최근 '전남여성정책 동향과 전망' 자료를 통해 전남지역 정치·행정·교육 분야의 여성 참여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9대 국회의원 중 여성 당선인 비율은 7.7%인 반면, 전남은 단 한 명의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48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도 1명뿐이었다.

지역 여성 국회의원이 없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을 포함한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또 지난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여성 의원은 16.0%로 전국 평균 21.7%에 못 미쳤다. 전국적으로 여성 지방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30.9%)였다.

투표를 통한 여성 지역의원은 부족한 대신, 도·시·군의원 비례대표는 여성이 29명으로 72.0%를 차지했고 남성은 3명 뿐이었다. 정당에서 지역구별 여성 후보자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를 통해 여성의원 비율만 맞추고 있는 셈이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당선자도 전무했으며 지난 2006년 1명, 2010년 2명의 여성후보자가 있었지만 당선되지 않았다. 여성 단체장은 지난 2004년 화순군수, 2007년 장성군수가 유일했다.

전남도청 내부 사정도 마찬가지

다. 전국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8.6%인데 전남은 4.9%로 절반 수준이었다.

또 중요 부서의 여성 비율도 낮아 기획부서 30%, 예산부서 20%, 인사부서 19%, 감사부서 16% 가량으로 나타났다.

고위직과 중요부서의 여성 참여가 특히 저조했고, 별정직(여성 336명·남성 77명)과 계약직(51명·129명) 등 고용이 다소 불안한 분야에 여성 공무원이 집중됐다. 단체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전남도 정무직도 전체 20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도 여성의 참여는 저조해 초·중·고교 교장 801명 중 여성은 73명으로 10.0%에 불과했

다. 특히 중학교 교장의 남성비율(91.8%)이 매우 높았고, 교장과 교감을 포함하면 고등학교 남성비율은 93.9%에 달했다.

반면, 평교사는 초등 여성 2912명·남성 1547명, 중등 여성 1786명·남성 925명, 고등 여성 1333명·남성 1827명 등 여성의 수가 더욱 많았다.

전남도의회 허갑숙(민주·순천) 의원은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30% 여성할당제를 두고 의무공천 비율을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과 지원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전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원장 이영선 신부(왼쪽)가 21일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5·18 왜곡 반대 서명운동'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천주교, 5·18 왜곡 반대서명운동

1차분 1만6764명 서명지 전달

한국 천주교회가 전국 성당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7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전국 성당에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도록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넷 사이트에

서 5·18 역사를 왜곡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바로잡고 이 땅의 후손들에게 5·18의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신부)는 지난 15일부터 광주 전남 131개 성당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반대 및 남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지난 21일 오전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1차분 1만 6764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태풍학습 효과' 전남 벼 재해보험 급증

2만1508농가 중 53% 가입... 영암 가장 많아

지난해 불라벤과 산바 등 잇따라 불어닥친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전남지역 벼 재배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2만 1508농가(면적 5만3803ha)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도내 가입 대상은 면적 가운데 53%가 가입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전국의 4만2459 농가의 50.7%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면적(11만6958ha)으로는 전국 대비 46%에 달한다.

지난해 도내 가입농가(9434농가), 면적(2만2851ha)과 비교하면 각각 2.4배와 2.3배 늘었다.

시·군별로 영암이 8028ha로 가장 많았으며 해남 6991ha, 나주 6324ha 순이었다. 3000ha가 넘는 곳도 강진, 고흥, 진도, 장흥, 함평 등 9곳에 달했다.

지난해 37ha에 불과했던 함평지역

은 올해 3048ha나 가입해 무려 83배 급증했으며 보성은 71배, 장성 58배, 고흥 21배 늘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큰 혜택을 본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올해 가입 농가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종화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태풍 피해로 도내 농가에서 지급받은 보험료가 38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태풍 불라벤과 산바의 영향으로 벼 재배 면적 17만2100여 ha의 36.9%인 6만8000여ha가 벼 쓰러짐 등의 피해를 봤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탄소은행제 에너지절약 눈에 띄네

28만 가입가구 중 54% 절감... 포인트 지급

국가적 전력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도입한 탄소은행제가 에너지 절약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은행제에 가입한 28만여 가구 중 54%인 15만2000여 가구가 전년보다 수도, 전기, 가스 등 에너지절약을 절감했다.

이 중 2만여가구는 에너지를 5% 이상 감축해 올해 탄소포인트(2억6300만원)를 지급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탄소포인트로 1억5600만원을 지급했으며, 불과 1년만에 탄소포인트 지급액수가 68.6%나 증가했다.

지난해 탄소은행제에 가입한

가구들의 분야별 에너지 절감량은 전기 4400만kWh로, 1가구(4인 기준)가 한달 평균 300kWh를 사용한다고 할 때 14만7000여 가구 가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수도는 217만㎡로 8만7000가구(25㎡ 사용기준), 도시가스는 840만㎡로 10만6000가구(80㎡ 사용기준)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절감했다.

절감한 에너지를 온실가스로 환산할 경우 3만8492t에 해당하며, 이는 1년간 중형승용차(2000cc) 2만대가 배출하는 양이다. 소나무 1385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시 '乙' 위한 직소민원센터 본격 운영

광주시는 지난 21일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센터(실장 김병내)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직소민원실을 확대 개편한 이 센터는 광주시청 1층 민원실 옆에 문

을 열었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아이디어로 개설된 '을을 위한 직소민원센터'는 시민을 을의 입장으로 보고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직소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인권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인권옴부즈맨을 거쳐 관련 부서에 통보되고, 옴부즈맨의 권고(견해)를 행정 혁신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인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계림동 ● 주지병원 ● 교래주치장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인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담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금-26호

2013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 영광군향우회가족 중 인성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생 - 대학생
 - 단, 2012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 선발예정인원 : 총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영광군에서 선발)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II.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에 한함)

III. 선발일정

- 서류접수 : 2013. 7. 1(월) ~ 7월 31일(수)
- 최종선정 : 2013. 8월경 발표 (2013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 2013.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VI.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04 영주체육관 117호, 사무총장 강 대 의

www.edaynews.com나 '재영광군향우회카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재영광군향우가족중 광주시민은 향우장학회 사무실로 우편접수하시며됩니다

자연산 참우를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우 보양식전문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삼우 음식 토종 참우담 / 우똥등우리 / 우똥삼계탕

한방 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등우리 / 춘담백숙 삼계탕

토종참우담 (오분, 식사소 포함) **40,000원**

춘담 백숙 **38,000원**

우똥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정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우똥 062)515-5757(우똥우똥)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 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광주역 ● 해피뷰병원(구,삼성병원) ● 함양우똥 ● 신촌성당 ● 농협 ● 북성중 ● 간암보검공단 ● 근로복지공단(중앙병원 사무소) ● 롯데백화점 ● 수창초교후문 ● 양동시장